

英語의 語強勢：接尾辭와 第一 強勢의 位置

黃 彥 澤

I

本稿는 첫째, 어떤 英語 單語에 接尾辭가 添加될 때, 添加된 그 接尾辭로 말미암아 그 單語의 第一 強勢는 어느 音節에 오는가, 둘째, 왜 그 音節에 第一 強勢가 오는가, 를 美國 英語를 중심으로 살펴본 것이다.

本稿의 考察 對象으로 接尾辭를 택한 것은, 接尾辭를 가진 單語의 強勢型은 語強勢의 規則性을 비교적 잘 反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反映은, 語強勢의 規則性에 관해서言及하려 할 때, 흔히 接尾辭를 가진 單語의 強勢型을 그 例로 들고 있다는 점에서 알 수 있다. 이를테면, Prator (1972: 19-21)는 第一 強勢의 位置를 결정할 수 있는, 例外 없는 規則의 設定은 거의 不可能하나, 多少 도움이 되는 事項은 있다고 前提하면서, 그 例로 接尾辭 -tion, -sion, -ic, -ical, -ity를 가진 單語는 그 接尾辭의 直前 音節에 第一 強勢가 온다는 말을 하고 있다. Prator가 일부 接尾辭에만 言及하고 있는 것은 위처럼 간단히 설명하기가 어려운 (곧, 例外가 적잖은) 接尾辭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되나, 이러한 語強勢의 規則性이 일부 接尾辭에만 適用된다는 것은 오히려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니, 여기에서 主要 接尾辭 전부에 대한 規則性의 有無 與否를 살펴 볼 필요가 생기게 된다. 그래서 나온 것이 前述한 本稿의 첫째 目的 (第一 強勢는 어느 音節에 오는가)이다. 또, 어떠한 言語 現象에도 그러한 現象이 나타나게 된 原因은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前述한 本稿의 둘째 目的 (왜 그 音節에 第一 強勢가 오는가)이 設定된 것이다.

本稿의 考察 對象이 된 接尾辭는 *Webster's New World Dictionary* (1974) (*New World*)와 *Webster's Third New International Dictionary* (1966)에 공통적으로 收錄되어 있는 接尾辭다. 다만, 音節을 구성하지 않는 接尾辭 (가령, -st, -th 등)는 本稿의 考察 對象에서 제외했다. 그리고, 綴字는 같으면서도 *New World*에서 別個의 接尾辭로 취급되어 있는 것은 本稿에서도 別個의 接尾辭로 취급했다. 이를테면, 接尾辭 -y는 *New World*에 -y¹, -y², -y³, -y⁴로 收錄되어 있기 때문에, 本稿에서도 -y는 -y, -y, -y, -y의 네 個의 接尾辭로 취급

했다는 것이다. 이처럼, 제외할 接尾辭를 제외하고, 또, 別個의 接尾辭로 취급할 것을 別個의 接尾辭로 취급하고 보니, 결국, 實際적으로 本稿의 考察 對象이 된 接尾辭의 數는 152 個 (本來系가 31 個, 外來系가 121 個)가 되었다.

本稿를 展開함에 있어서는, 우선, 接尾辭의 分類부터 다루었다 (§ 2.1). 分類 여하에 따라 그 論旨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또, 英語 語強勢의 複雜相은 주로 本來系의 強勢 規則과 外來系의 強勢 規則의 共存에서 緣由된 樣相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系統을 分離, 우선, 本來系의 接尾辭를 다루고 (§ 2.2), 이어, 外來系의 接尾辭를 다룬 다음 (§ 2.3), 마지막으로, 이 두 가지 系統 사이의 關係를 다루었다 (§ 2.4).

II

2.1. 接尾辭의 分類. 音節의 位置에 관한 표현은 本稿의 性格上 자주 나올 수 있는 표현이요, 또한, 本稿에서 試圖하려는 接尾辭의 分類에도 直結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記述上의 簡便을 위해서, 그 位置를 $\pm n$ 이란 形式으로 表示하기로 한다. 이 形式 중의 「+」記號는「語頭에서」를 가리키고, 「-」記號는「語尾에서」를 가리키며, n 은 音節의 位置를 가리킨다. 따라서, $+n$ 은「語頭에서 n 째 音節」, $-n$ 은「語尾에서 n 째 音節」을 각각 가리키게 된다. n 대신 數字를 사용해서 다시 例를 들어 본다면, $+2$ 는 語頭에서 둘째 音節, -3 은 語尾에서 셋째 音節을 각각 가리킨다는 것이다. 이 表示法을 사용하면, *á*nimal은 $+1$ 에 第一 強勢가 오는 單語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또, -3 에 第一 強勢가 오는 單語라고도 표현할 수 있다.

本稿의 目的을 위해서, 筆者는 接尾辭를 0의 接尾辭, -1 의 接尾辭, -2 의 接尾辭, ... 등으로 分類해 보았다. 0의 接尾辭란, 그 接尾辭의 添加 또는 存在에도 불구하고, 원래 語幹에 있던 第一 強勢의 位置를 移動시키지 않는 接尾辭를 가리킨다. 이를테면, *cap*taincy는 *cap*tain에 接尾辭 *-cy*가 添加되어서 구성되어 있는데도, 第一 強勢는 依然히 *cap*-에 있기 때문에, 이 接尾辭 *-cy*는 0의 接尾辭다. -1 의 接尾辭란, 그 接尾辭의 添加 또는 存在로 말미암아, 第一 強勢로 하여금 -1 에 오게 하는 接尾辭를 가리킨다. 이를테면, *vóluntéer*는 接尾辭 *-eer*의 存在로 말미암아, 第一 強勢가 -1 에 와 있기 때문에, 이 接尾辭 *-eer*는 -1 의 接尾辭다. -2 의 接尾辭, -3 의 接尾辭, -4 의 接尾辭, ... 등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 接尾辭의 添加 또는 存在로 말미암아, 第一 強勢로 하여금 각각 -2 , -3 , -4 , ... 등에 오게 하는 接尾辭를 가리킨다.

上記와 같은 接尾辭의 分類는

(1) 派生語의 第一強勢의 位置는 그 接尾辭에 의해서 定해진다.

라는 假說에 立脚해서 나온 것이다. 筆者가 이러한 假說을 세우게 된 經緯는 다음과 같다. 앞에서, 接尾辭 -tion, -sion, -ic, -ical, -ity를 가진 單語는 그 接尾辭의 直前 音節에 第一強勢가 온다는 Prator (1972)의 말을 引用한 바 있다. 한편, 大西 (1948: 128-29)도 Prator와 마찬가지로 그 直前 音節에 第一強勢가 오는 接尾辭를 例示하고 있는데, 다만, 例示하고 있는 接尾辭의 數는 16 個로서 Prator의 5 個보다도 더 많다. Prator의 5 個는 大西의 16 個는, 이 2 많은 接尾辭 中의 일부만을 例示한 것에 不過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면, 本稿의 考察 對象이 152 個의 接尾辭 전부에 대해서도 Prator나 大西의 趣旨는 그대로 適用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 게다가, 派生語의 第一強勢의 位置는 그 接尾辭에 의해서 아주 크게 統制를 받는다는 Kingdon (1958: 57)의 말도 있다. 이러한 점들을 모두 綜合해서 나온 假說이 上記의 (1)인 것이다.

2.2. 本來系의 接尾辭. 例가 되는 單語와 함께 列擧된 다음 (2)의 接尾辭는 모두 本來系의 接尾辭다.

(2) -dom	(mártyrdom)	-ed	(bléssed)	-en	(gólden)
-er	(delíverer)	-es	(kísses)	-est	(gréatest)
-eth	(fórtieth)	-eth	(ásketh)	-fold	(ténfòld)
-ful	(respétful)	-hood	(báachelorhòod)	-ie	(bírdie)
-ing	(léarning)	-ish	(dévilish)	-le	(bábble)
-less	(bóttomless)	-ling	(híreling)	-ling	(dárkling)
-ly	(mónthly)	-ly	(béautifully)	-most	(sóuthernmòst)
-ness	(nárrowness)	-ock	(híllock)	-ship	(schólarship)
-some	(tíresome)	-some	(thréesome)	-ster	(gángster)
-ward	(báckward)	-wards	(lándwards)	-ways	(éndwàys)
-y	(yéllowy)				(31 個)

(2)의 接尾辭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공통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2)의 接尾辭는 모두 0의 接尾辭라는 점이다. 本稿의 考察 對象이 된 152 個의 接尾辭 中에서 本來系의 接尾辭는 이 31 個 뿐이라는 점을 勘案한다면, 0의 接尾辭는 오로지 本來系의 接尾辭를 위한 類型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다. 또 하나는, (2)에 例擧된 單語를 보아서도 알 수 있듯이, (2)의 接尾辭가 붙는 語幹은 거의가 獨立된 單語라는 점이다. 極少數이기는 하나, 接尾辭

le의 例 babble 의 bab-처럼, 그것이 獨立된 單語였는지 아니었는지 명확히는 알 수 없는 語幹이 많지는 않다. 또한, éarly [ear (=ere) + ly]의 語幹 ear-나 worship [wor (=worth) + ship]의 語幹 wor-처럼, 비록 그 語幹이 歷史적으로 보아 하나의 獨立된 單語였다 하더라도, 現代 英語의 語形上, 그렇다는 것을 쉬이 알기가 어려운 것도 없지는 않다. 그러나, 本來系의 接尾辭가 「單語」+ 接尾辭란 形式을 취하려는 아주 強力한 傾向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은 否認할 수 없으며, 또 이 強力한 傾向은 0의 接尾辭라는 점과 함께 本來系 接尾辭의 二大 特徵을 형성하고 있다. 이 二大 特徵을 하나로 묶어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이 될 것이다. 곧, 本來系의 接尾辭는 單語에 添加되며, 그 單語의 強勢型을 變化시키지 않는다.

다른 類型의 接尾辭와는 달리, 0의 接尾辭는 그 定義에 있어서나 그 名稱에 있어서나 어느 한 特定 音節을 指摘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本稿의 目的을 위해서는, 0의 接尾辭를 가진 單語의 어느 音節에 第一 強勢가 오는가에 대한 考察이 뒤따르지 않을 수 없으며, 또 그러기 위해서는, 英語 本來의 強勢 規則을 檢討해 보지 않을 수 없다. 英語 本來의 強勢 規則(곧, 古代 英語期부터 내려 온 強勢 規則)에 대해서는 論者에 따라 그 說明 內容이 다 같지는 않지만, 本稿의 目的을 위해서는, Wright & Wright (1925: 16)의 다음 (3)이 도움이 될 것 같다.

- (3) 複合語가 아닌 本來語의 第一 強勢는 항상 語幹 [의 第一] 音節에 오며, 설령 이 單語에 어떤 接尾辭나 屈折 語尾가 添加된다 하더라도, 그 第一 強勢는 移動하지 않는다.

(3) 이 本稿를 위해서 도움이 된다고 말한 것은 本來系의 接尾辭가 0의 接尾辭임을 (3)의 後半이 직접 明示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語幹 音節에 第一 強勢가 온다는 것은 alive, becôme, forgive처럼 接頭辭에는 第一 強勢가 오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事緣 때문인지, 中島 (1951: 76)는 「게르만 語派의 여러 言語에서는, 악센트가 항상 單語의 가장 重要한 音節(이것은 接頭辭가 없는 限, 第一 音節이다)에 있다」처럼, 接頭辭가 없는 경우에 限해서, 第一 強勢가 오는 音節에 대한 명확한 言及을 하고 있다.

그런데, 英語 本來의 強勢 規則인 (3)의 前半과 後半에서 각각 한 가지씩 다음과 같은 문제를 생각할 수 있다. 곧, 前半에서는, 왜 第一 強勢는 항상 語幹의 第一 音節에 오는가 라는 문제요, 後半에서는, 接尾辭의 添加에도 불구하고, 왜 第一 強勢는 移動하지 않는가 라는 문제다.

前半 문제, 곧, 왜 第一 強勢는 항상 語幹의 第一 音節에 오는가, 에 대해서는, 이미 위에서 引用한 바 있는 中島 (1951)의 말이 그 답변 구실을 하고 있다. 곧, 語幹의 第一 音節이

「가장 重要한 音節」이기 때문에, 그 音節에 第一 強勢가 온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趣旨의 말은 Jespersen (1954 : 151)도 하고 있다. 곧, 「本來語에서는, 일반적으로 主要 概念은 第一 音節에 內包되어 있다 … 따라서, 대부분의 本來語는 그 第一 音節에 強勢가 오는 것이다」. 이 Jespersen과 中島의 말을 綜合하면, 결국, 語幹의 第一 音節이 가장 重要한 意味를 內包하고 있기 때문에, 그 音節에 第一 強勢가 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곧, Jespersen이나 中島의 이 見解는 意味 強調에 焦點을 둔 見解다. 비록 왜 語幹의 「第一 音節」이 가장 重要한 意味를 內包하고 있는가에 관해서는, Jespersen도 中島도 명확히는 言及하고 있지 않다는 問題點은 있으나, 語幹이 接尾辭보다 더 重要한 意味를 內包하고 있다는 것은 다시 말할 것도 없으니, 이러한 意味에서, 이 見解는 一次的으로 意義 있는 見解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것과는 아주 다른 角度에서 이 문제를 論하고 있는 사람에 Hyman이 있다. Hyman (1975 : 208—9)은 強勢 配分 規則의 評價 基準으로서 概念的 自然性 (conceptual naturalness)과 音聲的 自然性 (phonetic naturalness) (後述)의 두 가지가 있다고 말한 다음, 概念的 自然性에 관해서 다음과 같은 要旨의 말을 하고 있다. 強勢의 理想的인 모습은 語 境界 (word boundary)를 명확히 하는 데 있으므로, 概念上으로 볼 때, 語 境界에 가까운 音節에 強勢를 두는 規則이 語 境界에서 먼 音節에 強勢를 두는 規則보다 더 自然的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言語가 좋아하는 強勢의 位置는 單語의 第一 音節이 되는 것이다. 곧, Hyman의 이 見解는 語 境界 明示에 焦點을 둔 見解다. 결국, 意味 強調에 焦點을 둔 Jespersen 등의 見解는 「語幹」音節에 第一 強勢가 오는 데 대한 한 가지 설명이 될 수 있고, 또, 語 境界 明示에 焦點을 둔 Hyman의 見解는 語幹의 「第一 音節」에 第一 強勢가 오는 데 대한 한 가지 설명이 될 수 있다.

後半 문제, 곧, 接尾辭의 添加에도 불구하고, 왜 第一 強勢는 移動하지 않는가, 는 一見 문제로서의 意義가 없는 듯이 보이기도 할 것이다. 왜냐 하면, 第一 強勢가 항상 語幹의 第一 音節에 온다는 말은, 接尾辭가 添加된다 하더라도, 第一 強勢는 依然히 語幹의 第一 音節에 남아 있게 된다는 뜻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이 문제를 좀 더 다른 角度에서 檢討해 보겠다. 單語는 發話 중의 어느 위치에 들어가더라도, 그 原形 (그 單語가 단독으로 발음될 때의 音聲 形式 (分音節 + 超分節的 特性))이 그대로 保存되어 있는 편이 그렇지 않는 편보다 더 自然的이다. 原形과 그 原形의 指示物이 항상 一致하기를 바라는 心理가 그렇지 않는 心理보다 더 自然的이기 때문이다. 이것을 原形 保存의 心理라 부르기로 한다. 그런데, 어떤 單語 (또는 語幹)에 어떤 接尾辭가 添加될 때 이 原形 保存의 心理가 作用한다면, 결국, 그 單語 (또는 語幹)의 原形은 變化를 받지 않는다. 이 文段 序頭의 표현으로 바꿔 말한다면, 接尾辭의 添加에도 불구하고, 第一 強勢의 位置는 變化를 받지 않는다는 말이 된다. 결론적으로, 前述한 意味 強調 및 語 境界 明示와 이 原形 保存의 心理가 英語 本來의 強勢 規則 (3)을 낳게 한 한 가지 原因이 된 것으로 생각된다.

2.3. 外來系の 接尾辭. 本稿의 考察 對象이 된 外來系の 接尾辭 121 個를 言語 系統面에서 그 構成比를 살펴 보면, 그리스語系 (라틴語·프랑스語 經由 包含) 接尾辭가 23 個 (19.1%), 라틴語系 (프랑스語 經由 包含) 接尾辭가 82 個 (67.7%), 프랑스語系 接尾辭가 14 個 (11.6%), 이탈리아語系 接尾辭가 1 個 (0.8%), 네덜란드語系 接尾辭가 1 個 (0.8%)로 되어 있다. 그런데, 「그리스語 起源의 單語는 그 綴字法에서 뿐만 아니라 그 強勢 體系에 있어서도 라틴語의 體系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원래의 그리스語 強勢는 그것이 우연히 라틴語 중에서도 保存되어 있는 경우에 限해서 英語에도 保存되어 있다」라는 Sweet (1891: 284-85)의 말에 따르면, 上記 그리스語系 接尾辭 23 個도 라틴語系 接尾辭에 포함시켜서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포함시키다 보면, 라틴語系와 同一視할 수 있는 接尾辭의 數는 105 個, 곧 外來系 전체의 약 87%가 된다. 또한, 프랑스語나 이탈리아語는 通俗 라틴語 (Vulgar Latin)가 발전해서 생긴 이른바 로망語 (Romance languages)다. 이러한 점들을 綜合해서 생각해 본다면, 外來系の 強勢 體系는 곧 라틴語의 強勢 體系라고 말하더라도 지나친 誇張은 안 될 것이다. 여기에서, 外來系 接尾辭와 第一 強勢의 位置와의 關係를 살피기에 앞서, 먼저 라틴語의 強勢 規則을 살펴 볼 필요가 생긴다.

다음의 (4)는 라틴語의 強勢 規則이다 (Wheelock, 1963: xxxii-xxxiii; Anderson, 1974: 97).

- (4) (a) 單音節語의 경우, 第一 強勢는 그 音節에 온다.
 (b) 二音節語의 경우, 第一 強勢는 +1에 온다.
 (c) 三音節 이상의 單語에서,
 (i) -2의 母音이, 長母音 또는 二重 母音이거나, 또는 두 個 이상의 子音이 後續하는 短母音일 경우, 第一 強勢는 그 -2에 오고,
 (ii) 그 外의 경우, 第一 強勢는 -3에 온다.
 (d) 다만,
 (i) 隣接한 두 母音이나 「母音 + 二重 母音」은 別個의 音節로 취급하고,
 (ii) ch, ph, th, qu와 「破裂音 (p, b, t, d, c, g) + 流音 (l, r)」은 한 個의 子音으로 취급하며,
 (iii) 重複 子音 (가령, tt 등)과 x는 두 個의 子音으로 취급한다.

이 規則에서 (4a)는 英語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문제가 되지 않으며, (4b)도 接頭辭가 없는 英語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리 문제될 것이 없다. 결국, 本來系の 強勢 體系와 아주 異質的인 것인 (4c) 뿐이다.

(4c)에 관해서 Hyman (1975: 209)은 音聲의 自然性(前說)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要旨의 말을 하고 있다. 곧, 強勢의 關鍵은 高低(pitch)다. b6y를 「〇」로 발음하듯, 根本적으로 強勢와 관련이 있는 것은 高低의 下降型이다. 그런데, -1에서 下降하기 시작하는 것보다 -2에서 下降하기 시작하는 것이 調音上의 努力이 덜 들고, 知覺上의 效果도 더 뚜렷하다(곧, 音聲적으로 더 自然스럽다). 따라서, 第一強勢가 오는 位置로서는 -1보다 -2가 더 적합하다. 결국, 일반적으로 強弱 言語가 택하는 第一強勢의 最適 音節은 +1(前說)과 -2다. 이상이 Hyman의 論旨다.

-2가 第一強勢의 最適 音節 중의 하나라는 것은 이탈리아語·에스파냐語·포르투갈語가 뒷받침해 주고 있는 現象이지만 (*Six-Language Dictionary*, 1959: xvii, xix, xx), 라틴語의 경우에는, -3에 第一強勢를 두려는 강한 傾向이 그 強勢 規則의 根底에 가로 놓여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싶다. 그 理由는 다음과 같다. 지금, V는 短母音을, \acute{V} 는 第一強勢를 받는(短·長·二重)母音을, V는 長母音 또는 二重母音의 第二要素를, [V]는 語尾 音節의(短·長·二重)母音을, C는 한 個의 子音을, C₀는 0 個(子音이 전혀 없음)이상의 子音을, C₁은 한 個 이상의 子音을, C₂는 두 個 이상의 子音을, #는 語境界를 각각 나타내는 것으로 한다면, 라틴語의 強勢 規則(4C)는

(5) (a) -2의 母音이 長母音 또는 二重母音일 경우,

$\acute{V}VC_0 [V] C_0 \#$

(b) -2의 母音이, 두 個 이상의 子音이 後續하는 短母音일 경우,

$\acute{V}C_2 [V] C_0 \#$

(c) -2의 母音이 上記(5a, b) 이외의 경우,

$\acute{V}C_0VC [V] C_0 \#$

처럼 나타낼 수 있다. 그런데, 調音 所要 時間上으로 보아, 라틴語의 語中에서는 대충 $VCC = VVC$ 인 관계가 성립한다(Allen, 1973: 51). 이것을(5b)에 代入하면 $\acute{V}C_2 [V] C_0 = VVC_1 [V] C_0$ 가 된다. 곧, (5a, b, c)는 각각

(6) (a) $VVC_0 [V] C_0 \#$

(b) $VVC_1 [V] C_0 \#$

(c) $\acute{V}C_0VC [V] C_0 \#$

가 되며, 이(6a, b, c)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할 수 있다. 곧,

(7) \acute{V} 는 [V]에서 왼쪽으로 세째 V 자리 (V 包含)에 온다.

그런데, 短母音은 長母音이나 二重 母音보다 더 基本的이라 생각할 수 있고, 또 (6a, b, c) 중 에서 세 個의 V (V 包含)가 모두 短母音일 수 있는 것은 (6c) 뿐이기 때문에, (6c)를 (6a, b, c) 중의 가장 基本的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면, (6c) 끝, -3에 第一 強勢를 두려는 강한 傾向이 틴라語 強勢 規則의 根底에 놓여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 다. 이러한 意味에서, 以下, -3의 接尾辭부터 살펴 보기로 한다.

예가 되는 單語와 함께 列擧된 다음 (8)의 接尾辭는 모두 -3의 接尾辭다.

(8) (a) -al	(medícinal)	-ial	(àrtificial)	-ical	(èconómical)
(b) -an	(dìòcesan)	-arian	(òctogenárian)	-ian	(rèptílian)
	-ician		(mùsícian)		
(c) -ence	(còmpetence)	-escence	(àdoléscence)		
(d) -ent	(díligent)	-escent	(flòréscent)	-ulent	(fráudulent)
(e) -ion	(invásion)	-ation	(còmpilátion)	-ization	(rèalizátion)
(f) -ity	(capácity)	-ability	(pròbabíity)	-ibility	(sènsibíity)
(g) -ium	(ammónium)	-onium	(sulfónium)		
(h) -ive	(púnitive)	-ative	(interrógative)		
(i) -ose	(pròtèòse)	-ose	(bélicòse)	-ulose	(gránulòse)
(j) -ous	(dàngerous)	-aceous	(hèrbáceous)	-eous	(béauteous)
	-ious		(fúrious)	-itious	(séditious)
(k) -acea	(Crústácea)	-aceae	(Àcàntháceae)	-aria	(Ûtrioulária)
	-ia		(milítia)		
(l) -ad	(mýriad)	-ad	(céphalàd)	-ance	(ígnorance)
	-ane		(úrethàne)	-ant	(rélavant)
	-ase		(àmylàse)	-aster	(dìàster)
	-ate		(dirèctorate)	-ein	(phthálein)
	-fy		(mýstifý)	-ice	(précipice)
	-idae		(Cánidàe)	-ide	(glúcoside)
	-in		(amýgdalin)	-ine	(crýstalline)
	-ine		(médicine)	-ine	(íodine)
	-ite		(dólomíte)	-ite	(fávorite)
	-ize		(solíloquize)	-ment	(órnement)
	-oid		(ásteròid)	-ol	(glýceròl)
	-one		(àcetòne)	-or	(interlócutor)
	-tude		(cértitùde)	-ule	(úmbellùle)

(74 個)

이상 74 個의 -3의 接尾辭를 12 群으로 나눈 것은, 가급적, 비슷한 語尾를 가진 接尾辭끼리 한 데 모아서 提示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內容은 다음과 같다. (8a)의 -ial, -ical은 모두 맨 처음에 提示한 -al의 應用形으로서, -al에 의한 第一強勢의 位置인 -3이 그대로 -ial, -ical에도 適用된다. 따라서, 그저 -al이 -3의 接尾辭라는 것을 알고 있기만 한다면, -ial, -ical은 굳이 이것이 어떤 類型의 接尾辭인가를 따로 살펴 볼 필요 없이, 그대로 -3의 接尾辭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해석은 (8a) 뿐만 아니라 (8b-j)에도 適用된다. 다시 말하자면, (8a-j)의 31 個의 接尾辭가 각각 어떤 類型의 接尾辭인가를 살펴 보는 대신에, 各 群의 첫째 接尾辭인 -al, -an, -ence, -ent, -ion, -ity, -ium, -ive, -ose, -ous의 10 個의 接尾辭만을 살펴 보면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8k)는 隣接한 두 母音으로 끝나 있는 接尾辭끼리 한 群으로 모은 것이며, (8l)은 이상의 어느 群에도 속하지 않는 接尾辭를 한 群으로 모은 것이다.

(8)의 接尾辭를 모두 -3의 接尾辭라고 말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렇게 말하기에 앞서, 한 가지 檢討해서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다. 그것은, (8)의 接尾辭가 存在함에도 불구하고, 가령, *invásion*, *gòvernmental*, *vácàte*처럼, 第一強勢가 (-3이 아니라) -2에 와 있는 예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다. 이하, 이 순서를 따라서 이 문제를 檢討해 보겠다.

*invásion*에 포함되어 있는 接尾辭 -ion은 歷史적으로 보아 二音節이다. Jespersen (1954 : 165)은, 接尾辭 -ion은 Chaucer도 二音節 (-ioun)로 사용했는데, /i/가 /j/로 변화하기 전에 리듬에 의한 強勢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가령, *condícioun*이었던 것이 지금은 *condítion*)고 설명하고 있다. Barber (1976 : 326)도 -ia, -ian, -ient, -ier, -ion, -ious는 원래 二音節이었고, 이 語尾 들의 第二音節에는 第二強勢가 있었다고 말하고 있다. 接尾辭 -ion이 나온 源泉인 라틴語에서도 이 接尾辭는 -ion-(em)처럼 二音節이다. 결국, 上記 Jespersen의 말처럼, -ion이 원래의 二音節을 保存하고 있었을 때, 리듬에 의해서 -3에 第一強勢가 왔으며, 그 후에 -ion이 單音節이 된 것이다. 本稿에서 -ion을 -3의 接尾辭로 보려는 所以도 여기에 있다. 위에서는 주로 -ion을 중심으로 論했지만, 이 論旨은 上記 Barber가 例示하는 接尾辭 외에도 -ial, -ium, -eous 등 두 個의 母音이 隣接하고 있는 경우에 그대로 適用된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注目하고 싶은 것은, 本稿의 考察 對象이 된 接尾辭만을 考慮에 넣을 때,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隣接 두 母音 文字 중 ae, ee, ie, oo, ou (이들은 각각 文字는 둘이나, 發音上으로는 처음부터 한 母音) 및 語尾의 默字 -e 외는 母音 文字 한 個가 한 音節 核音을 이루고 있다 (또는 이루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을 考慮에 넣는다면, 비록 綴字를 爲主로 한 말하기는 하지만, 다음과 같은 말을 할 수 있다. 끝.

- (9) -3의 接尾辭는 第一強勢로 하여금 語尾에서 세째 母音 文字에 오게 한다. 다만, ae, ee, ie, oo, ou 등 하나의 母音을 나타내는 隣接 두 母音 文字는 한 個의 母音 文

字로 看做하며, 語尾의 默字 -e는 音節數 計算에서 제외한다.

이 (9)에 따르면, 가령 *invasion*의 경우, 語尾에서 세째 母音 文字가 第一 強勢를 받아 *invásion*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결국, 「 \acute{V} 는 [V]에서 왼쪽으로 세째 V 자리에 온다」(7)에 歸結된다고 말할 수 있다.

*gòvernmental*의 第一 強勢의 位置는 音節上으로나, 또는 上記의 母音 文字上으로나 語尾에서 세째라고 말할 수 없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이 세의 接尾辭 -al도 -3의 接尾辭라고 本稿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 \acute{V} 는 [V]에서 왼쪽으로 세째 V 자리에 온다」(7)에 의하고 있기 때문임은 다시 말할 것도 없지만, 그 외에), 本稿는 前述한 「派生語의 第一 強勢의 位置는 그 接尾辭에 의해서 定해진다」(1)라는 假說에 立脚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假說의 根本的인 意圖는 다음과 같다. 곧, 한 接尾辭는 根本的으로 0의 接尾辭, -1의 接尾辭, -2의 接尾辭, ... 등 중의 어느 한 類型에만 속한다는 것을 接尾辭 考察의 始發點으로 삼고, 설령 두 가지 이상의 類型에 동시에 속하거나 속하는 것처럼 보이는 接尾辭가 있다 하더라도, 그 두 가지 이상의 類型 중에서 가장 基本的이라고 생각되는 類型 한 가지만을 그 接尾辭의 基本的 類型으로 定하고, 그 외는 이 基本的 類型의 한 發展型이라고 생각하려는 데 그 意圖가 있다. (7)은 接尾辭의 이 基本的 類型을 定하는 일종의 理論的 根據를 提示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al은 *madfícinal*에서는 -3의 接尾辭, *gòvernmental*에서는 -2의 接尾辭이지만, (7)에 의해서 -al을 -3의 接尾辭라고 定한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接尾辭와 第一 強勢의 位置와의 關係를, 그 源泉과 主流와 支流로 나누어서, 系統的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觀點에서 *gòvernmental*에 보이는 現象을 前述한 (9)에 포함시키면, 그 (9)에는 다음 (10)의 但書가 하나 더 添加된다.

(10) 다만, 語尾에서 첫째 母音 文字와 둘째 母音 文字 사이에 있는 두 個 이상의 子音 文字는 한 個의 母音 文字로 看做하되, ch, ph, th, qu와 「破裂音 (p, b, t, d, c, g) + 流音 (l, r)」은 한 個의 子音 文字로, 重複 子音과 x는 두 個의 子音 文字로 각 看做한다.

*vacàte*의 接尾辭 -ate를 -3의 接尾辭로 본다면, 이 單語의 第一 強勢는 $_vacate$ 처럼 이 單語밖의 音節에 오게 된다. 이런 경우, 대부분은 +1에 第一 強勢가 온다고 Kingdon (1958: 57)은 말하고 있다. 또, 라틴語에서, 第一 強勢가 오는 重音節 (heavy syllable: 核 (core)이 V:, VV, VC인 音節)이, 語尾 音節을 제외해서, 그 單語에 없는 경우에는, 비록 +1이 輕音節 (light syllable: 核이 V인 音節)이라 하더라도, 그 +1에 第一 強勢가 온다고 Hyman

(1975: 206-7)은 말하고 있다. 上記 Kingdon과 Hyman의 말을 綜合해서, 筆者는 다음의 (11)을 하나의 規則으로 設定해 보았다.

(11) 語尾에서 n째 音節에 第一 強勢가 오는 強勢 規則에서, 만일 그 n째 音節이 그 單語 안에 없을 때에는, +1에 第一 強勢가 온다.

(11)을 하나의 規則으로 내세워 줌으로써, 上記 vacâte의 -ate를 여전히 -3의 接尾辭로 취급할 수 있게 된다. 이상 -3의 接尾辭에 관한 考察을 모두 마침에 있어서, 그 考察에 나타난 規則 (9, 10, 11)을 하나로 묶어 보면 다음의 (12)가 된다.

(12) -3의 接尾辭는 第一 強勢로 하여금 語尾에서 세째 母音 文字에 오게 한다. 다만,

(a) ae, ee, ie, oo, ou 등 하나의 母音을 나타내는 隣接 두 母音 文字는 한 個의 母音 文字로 看做한다.

(b) 語尾의 默字 -e는 音節數 計算에서 제외한다.

(c) 語尾에서 첫째 母音 文字와 둘째 母音 文字 사이에 있는 두 個 이상의 子音 文字는 한 個의 母音 文字로 看做하되, ch, ph, th, qu와 「破裂音 (p, b, t, d, c, g) + 流音 (l, r)」은 한 個의 子音 文字로, 重複 子音과 x는 두 個의 子音 文字로 각각 看做한다.

(d) -3이 그 單語 안에 없을 때에는 +1에 第一 強勢가 온다.

예가 되는 單語와 함께 列擧된 다음 (13)의 接尾辭는 모두 -2의 接尾辭다.

- | | | | |
|----------|-------------------|------------------|----------------------|
| (13) (a) | -ales (Ròsàlès) | -ana (Amèricàna) | -iana (Jòhnsòniàna) |
| | -ina (bàllerína) | -inae (Fèlínàe) | -itis (appèndicítis) |
| | -oma (sàrcóma) | -osis (neurósis) | |
| (b) | -ean (Èuropéan) | | |
| (c) | -fic (scìentífic) | -ic (dramàtic) | -ics (acóustics) |
| | -istic (àrtístic) | -otic (nàrcótic) | (14 個) |

(13a)의 接尾辭가 -2의 接尾辭에 속해 있는 것은 라틴語의 形態 그대로인 이들 接尾辭에 포함되어 있는 -2의 母音이 모두 라틴語의 強勢 規則 (4ci)에 해당하는 長母音이기 때문이다. 綴字上으로 母音의 長·短을 識別하기란 거의 不可能한 일이기 때문에, (12)처럼 綴字를 爲主로 한 規則을 設定하기는 매우 어렵다. 다만, 이들 接尾辭를 가진 單語는 -ales (植物學

分類名), -ana (固有 名詞에 添加), -iana (固有 名詞에 添加), -ina (女性 表示), -inae (動物學 分類名), -itis (病名), -oma (病名), -osis (病名) 등 日常用語와는 多少 거리가 있는 특수한 單語다.

(13b)의 -ean은 發生的으로 二重 母音이지만 ([<L. -ae-, -e-, -i-, Gr. -ai-, -ei- (名詞·形容詞의 語幹 語尾) + -an] (*New World*)), 이 接尾辭의 形態上으로는 그러한 識別을 하기가 어려우니, 자연히 -ian (-3의 接尾辭)과의 混同(混同)이 일어나기 쉽다. shàkspéarean 대신에 Shàkspéarian이란 綴字가 나오게 된 것도, 이러한 混同을 피해서, -ean은 -2의 接尾辭, -ian은 -3의 接尾辭로 각각 구분해서 사용하려는 意向 때문인 듯 생각된다.

(13c)는 모두 -ic形의 接尾辭인데, 本稿에서는 이 -ic을 -ical (-3의 接尾辭)의 變異形이라 보고, 그 強勢型도 -ical의 -al이 없어서 -ic이 된 것으로 해석하고 싶다. 그 理由는 다음과 같다. 첫째, 歷史적으로 보아, -ical을 가진 形容詞는 -ic을 가진 같은 意味의 形容詞보다 먼저 만들어진 例가 적잖기 때문이다 (Onions, 1966 : 458). 그렇다면, 이와같은 두 形容詞의 第一 強勢가 각각 동일한 音節에 왔을 것이라는 可能性을 全적으로 排除할 수는 없을 것이다 (곧, -ical, -ic). 둘째, -ic 直前 音節의 母音은 일반적으로 短母音인데 (가령, dramatic) (Onions, 1966 : 458), 「短母音 + -ic」에서 이 短母音에 第一 強勢가 온다는 것은 라틴語의 強勢 規則(5ci)에 없기 때문이다. 바꿔 말한다면, 만일 -ic을 -2의 接尾辭로 본다면, -2의 接尾辭중 -ic形의 接尾辭만이 라틴語의 強勢 規則을 어긴다는 뜻이 된다. 셋째, -ic을 가진 形容詞에 副詞 接尾辭 -ly를 添加할 때에는, (publicly라는 特異한 例外가 전혀 없는 것도 아니지만) -ic에 -al을 添加하고 난 다음에 -ly를 添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形容詞에 일단 다른 接尾辭를 添加하고 난 다음에 -ly를 添加하고 있는 形容詞는 -ic을 가진 形容詞 뿐이다. 이것은 -ic만으로는 正常的인 形容詞라 斷定하기가 어렵고, 이 -ic에 -al을 添加한 語形이라야만 正常的인 形容詞라 말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상의 理由로 -ic이 가지는 強勢型의 源泉을 -ical에서 찾고 싶다는 것이다.

例가 되는 單語와 함께 列擧된 다음 (14)의 接尾辭는 모두 -4의 接尾辭다.

- | | | |
|--------------------------|--------------------|------------------|
| (14) (a) -ary (cúlinàry) | -atory (hórtatòry) | -ery (mónastèry) |
| -ory (cátègòry) | | |
| (b) -able (hóspitable) | -ible (éligible) | -ism (méchanìsm) |
| (c) -ancy (ádjutancy) | -ency (cómpetency) | |
| (d) -ator (impróvisàtor) | | |
| (e) -ably (hóspitably) | | (11 個) |

-4에 第一 強勢를 두는 規則은 라틴語의 強勢 規則에 없기 때문에, (14)의 接尾辭에 대해서

는 라틴語의 強勢 規則 외에 다른 原理도 함께 考慮되지 않을 수 없다. 그 原理는 리듬과 類推다. 여기에서 말하는 리듬이란 強音節과 弱音節이 번갈아 나타나는 現象으로서, 리듬에 의해서 強勢의 位置가 移動했다는 말은, 가령, 원래 -1 (強)에 있었던 第一 強勢가 -2 (弱)를 거쳐 -3 (強)으로 移動했을 경우 등을 말한다. Jespersen (1954 : 167)은 military를 例로 들어, 이 單語의 -1 (-y)은 古代 프랑스語 때부터 弱母音이었는데 (OF. milita^rie, 現在는 militaⁱre), 이것이 ME. milita^ry를 거쳐 (리듬에 의한 強勢의 移動으로) 現在의 milita^ry가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 설명은 (14a)의 모든 接尾辭에 그대로 適用된다. 또, (14b)의 接尾辭에 대해서도 formidable (F. formid^able), corrigible (F. corrigⁱble), syllogism (F. syllogⁱsme)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이들 接尾辭의 -1이 弱音節이었다는 점에서, (14a)와 같은 趣旨의 설명을 할 수 있다. (14c)의 -ancy, -ency에서, 그 -1의 -y는 (15a)의 -y와는 달리 원래 第一 強勢가 있었는데도, -ancy, -ency가 -4의 接尾辭가 되어 있는 것은 -ance, -ence (둘 다 -3의 接尾辭)를 類推한 結果라고 생각되고 있다 (Jespersen, 1954 : 167-68). (14d)의 -ator도 역시 -1에 強勢가 있었는데도, 이것이 -4의 接尾辭가 되어 있는 것은, 가령, éducator [éducat^e (動詞)+ -or (動作主 名詞를 나타내는 0의 接尾辭 (後述))] 등을 類推한 結果라고 생각한다. 곧, improvise (動詞)의 動作主 名詞에는 improviser와 impróvisator의 두 가지가 있는데, 後者の 強勢型은 impróvisator = *impróvisate + -or로 본 結果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14e)의 -ably는 -able + -ly (0의 接尾辭)이니, 자연히 (14b)의 -able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第一 強勢의 位置가 결정된다.

例가 되는 單語와 함께 列擧된 다음(15)의 接尾辭는 모두 -1의 接尾辭다.

(15) -ade (sèrenáde)	-ee (rèfugée)	-ee (Chinée)
-eer (ènginèer)	-ese (Pòrtuguése)	-esque (picturésque)
-ette (ròulétte)	-ier (càshier)	(8 個)

이들 接尾辭는 모두 프랑스語에서 들어온 接尾辭이기 때문에, 자연히 프랑스語의 強勢 規則 (곧, 語尾 音節에 強勢가 온다)을 따라 -1의 接尾辭가 되어 있는 것이다.

2.4. 兩系 間의 關係. 당초 -1에 強勢가 있었던 프랑스語 起源의 긴 單語들이 대부분, 本來語 強勢 体系의 「類推」로, +1에 그 強勢를 移動시킨 것은 이미 中世 英語期부터 일어난 現象으로서, 이와 같은 傾向이 近代 英語期에 들어오면서 더욱 더 강해졌음은 Sweet (1891 : 284)도 이미 指摘한 바 있다. 이 節에서 살펴 보려는 것은 이 「類推」가 外來系의 接尾辭에 대해서 어떤 作用을 했는가 (또는, 하고 있는가)에 관한 문제다. §2.2에서 「本來系의 接尾辭는

單語에 添加되며, 그 單語의 強勢型을 變化시키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것을 類推의 對象 基準으로 삼으려 한다. 바꿔 말한다면, 語幹이 하나의 獨立된 單語라고 意識될 때, 그 語幹에 어떤 接尾辭를 添加하더라도, 그 語幹이 당초 가지고 있던 第一 強勢의 位置를 그대로 保存하려는 心的 過程을 여기에서 말하는 類推의 意義로 삼는다는 것이다.

예가 되는 單語와 함께 列擧된 다음 (16)의 接尾辭는 모두 0의 外來系 接尾辭다.

(16)	-age (párentage)	-ard (slúggard)	-art (brággart)
	-cy (généralcy)	-ess (proprietress)	-et (pácket)
	-kin (mánikin)	-let (bóoklet)	-ry (déntistry)
	-ty (nóvelty)	-y (kítty)	-y (jéalousy)
	-y (entréaty)	-yer (sáwyer)	(14 個)

(16)의 接尾辭가 外來系의 接尾辭인데도 0의 接尾辭가 된 原因으로서 우선 指摘할 수 있는 것은, 이들 接尾辭가 독립된 單語에 添加되는 接尾辭라는 점이다. -kin은 네덜란드語系(게르만語派系)의 接尾辭이기 때문에, (3)에 의해서 0의 接尾辭가 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다만, 그 예가 되는 單語 mánikin이 語源上으로 [Du. manneken <man, man + dim. suffix -ken] (*New World*)이라 하더라도, 英語의 立場에서 본다면, 그 語幹 mani-를 독립된 單語라고 보기가 어려운 점은 있다. 그러나, 英語에서 만들어진 lamb(kin), boot(i)(kin), lady(kin) 등을 통해서 본다면, 英語 國民의 心理上, -kin이 單語에 添加되는 接尾辭라는 觀念이 강하게 作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英語 國民의 心理에 作用하는 이 강한 觀念은 (16)의 다른 接尾辭에 대해서도 거의 그대로 適用된다.

이상, 本稿가 考察 對象으로 삼은 外來系의 接尾辭 121 個를 -3의 接尾辭 (8) (74 個), -2의 接尾辭 (13) (14 個), -4의 接尾辭 (14) (11 個), -1의 接尾辭 (15) (8 個), 0의 接尾辭 (16) (14 個)로 나누어서, 한 接尾辭는 根本적으로 이 중의 어느 한 類型에만 속한다는 것을 始發點으로 삼아, 각각 그 내용을 살펴 보았다. 그런데, 外來系의 接尾辭 중에는 두 가지 類型에 걸쳐 있는 것이 있다. 이런 경우, 그 두 가지 類型이란, 거의, 하나는 지금까지 論해 온 그 接尾辭의 類型이요, 또 하나는 0의 接尾辭다. 이러한 現象은, 곧, 外來系의 接尾辭가 英語 本來의 強勢 體系를 類推하는 方向으로 變化하고 있음을 示唆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예가 되는 單語와 함께 列擧된 다음 (17)의 接尾辭가 바로 이러한 종류의 接尾辭다.

(17)	-able (détérminable)	-ably (détérminably)	-al (appróval)
	-ance (acquáintance)	-ancy (ascéndancy)	-ant (émigrant)

-ative (conservative)	-atory (explánatòry)	-ence (exístence)
-ency (consistency)	-ent (appàrent)	-ery (cajólery)
-ible (divisible)	-ism (pùritanìsm)	-ist (sécularist)
-ive (invásive)	-ize (repúblicanìze)	-ment (góvèrnt)
-or (educàtor)	-ory (côntradíctory)	-ure (discómfiture)

(21 個)

(17)에서 例로 든 單語를 보아서도 알 수 있듯이, 그 語幹은 모두 독립된 單語요, 따라서, 英語 本來의 強勢 体系를 類推해서 0의 接尾辭가 되어, 그 語幹(單語)이 원래 가졌던 第一 則勢의 位置를 移動시키지 않고 있다. 다만, (17)의 單語 중, émigrant의 語幹 émigr-은 이 에 -ate를 添加한 形態, 곧, émigrâte를 基底 語幹으로 본다. -ate로 끝난 라틴語系 動詞에 -ant, -able 등의 接尾辭를 添加할 때에는, -ate를 除去한 나머지 部分(가령, émigrâte의 émigr-, educâte의 educ- 등)에 그러한 接尾辭를 添加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 explána- tòry, appàrent의 語幹 explán-, appár-는 expáin, appéar에 母音 變化가 일어나 있으나, 第一 強勢의 位置에는 變化가 일어나 있지 않다. 그리고, divisible, invásive의 語幹 divis-, invás-는 divide, inváde에 子音 變化가 일어나 있으나, 이것 역시 第一 強勢의 位置에는 變化가 일어나 있지 않다. obligatory에는 obligatòry와 óbligatòry의 두 가지 強勢型이 있는데, 前者는 oblíge에서, 後者는 óbligâte에서 派生된 것이기 때문에 생긴 強勢型이다 (Hyman, 1975: 199—200). oblíge든 óbligâte든 obligatory든 모두 라틴 借用語임에도 불구하고, obligatòry나 óbligatòry는 그 어느 쪽도 라틴語의 強勢 規則에서 나온 強勢型이 아니다. 이것은, 單語에 添加되되, 그 單語의 強勢型을 變化시키지 않는 本來系 接尾辭의 類推에 緣由된 現象이라 할 수 있다. 이 類推를 통한다면, 第一 強勢가 -5에 와 있는 pùritanìsm(-ism은 -4의 接尾辭), -4에 와 있는 repúblicanìze (-ize는 -3의 接尾辭), -2에 와 있는 appróval (-al은 -3의 接尾辭) 등도 쉬이 설명할 수가 있을 것이다.

II

이상, 接尾辭가 第一 強勢의 位置에 미치는 影響을 살펴 보았다. 派生語의 第一 強勢의 位置는 그 接尾辭에 의해서 定해진다라는 假說에 立脚해서, 우선, 接尾辭를 0, -1, -2, -3, -4의 接尾辭 등 다섯 가지 類型으로 分類하고, 어떠한 接尾辭도 根本의으로는 이 다섯 가지 類型 중의 어느 하나에만 속한다는 것을 接尾辭 考察의 始發點으로 삼았다. 考察 結果는 다음과 같다.

類型	本來系 接尾辭	外來系 接尾辭	
		(프랑스語系)	(라틴語系(등))
	0	-1	-2 -3 (-4)

곧, 本來系의 接尾辭는 0의 接尾辭에 속하고, 프랑스語系의 接尾辭는 -1의 接尾辭에 속하며, 라틴語系 (그리스語系 포함)의 接尾辭는 -2와 -3의 接尾辭에 속하되, 古代 프랑스語 등에서 -2에 強勢가 있었던 라틴語系 接尾辭는 -4의 接尾辭에 속한다. 또, 外來系의 接尾辭 중에는 本來系 接尾辭의 特徵 (곧, 本來系의 接尾辭는 單語에 添加되며, 그 單語의 強勢型을 變化시키지 않는다)의 影響을 받아서 0의 接尾辭가 되어, 그 接尾辭를 添加하더라도 그 語幹이 원래 가졌던 第一 強勢의 位置를 移動시키지 않는 接尾辭도 있다. 이것은 外來系의 接尾辭가 本來系 接尾辭의 影響圈內에 존재한다는 것을 示唆해 주는 것이다.

引用文獻

- Allen, W. Sidney, (1973). *Accent and Rhythm: Prosodic Features of Latin and Greek: A Study in Theory and Reconstruction*.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Anderson, Stephen R. (1974). *The Organization of Phonology*. New York: Academic Press.
- Barber, Charles (1976). *Early Modern English*. London: André Deutsch.
- Hyman, Larry M. (1975). *Phonology: Theory and Analysis*. New York: Holt, Rinehart & Winston.
- Jespersen, Otto (1954). *A Modern English Grammar on Historical Principles, Part I*. London: George Allen & Unwin. (First Edition, 1909.)
- Kingdon, Roger (1958). *The Groundwork of English Stress*. London: Longmans, Green & Co.
- Onions, C. T. (ed.) (1966). *The Oxford Dictionary of English Etymology*. Oxford: Clarendon Press.
- Prator, Clifford H., Jr. (1972). *Manual of American English Pronunciation*. Third Edition. (Revised by Betty Wallace Robinett.) New York: Holt, Rinehart & Winston.
- Six-Language Dictionary* (1959). Ed. The Japan Times. Tokyo: Hara Shobo.
- Sweet, Henry (1891). *A New English Grammar: Logical and Historical, Part I*.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Webster's New World Dictionary of the American Language (1974). 2nd College Edition. Cleveland, Ohio: William Collins + World Publishing.

Webster's Third New International Dictionary of the English Language (1966). G. & C. Merriam.

Wheelock, Frederic M. (1963). *Latin: An Introductory Course Based on Ancient Authors*. 3rd Edition. New York: Barnes & Noble.

Wright, Joseph & Wright, Elizabeth Mary (1925). *Old English Grammar*.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中島文雄 (1951). 「英語發達史」. 東京: 岩波書店.

大西雅雄 (1948). 「英語發音の研究」. 東京: 旺文社.

— Summary —

English Word Stress : The Influence of Suffixes on the Position of the Primary Stress

Hwang Un-tack

In this paper 152 suffixes—31 suffixes are native, 121 foreign—are placed in five classes:

1. Suffixes of Class 0: those causing no alteration in the position of the primary stress of the stem;
2. Suffixes of Class -1: those throwing the primary stress on the last syllable of the word;
3. Suffixes of Class -2: those throwing the primary stress on the penultimate syllable of the word;
4. Suffixes of Class -3: those throwing the primary stress on the antepenultimate syllable of the word;
5. Suffixes of Class -4: those throwing the primary stress on the fourth syllable from the end of the word.

When suffixes are classified as above, all native suffixes belong to Class 0, suffixes of French origin to Class -1, and suffixes of Latin (including Greek) origin to Class -2, Class -3, and Class -4 (in case of suffixes with stress on the penultimate syllable in old French). This study is on the hypothesis that each suffix originally belongs to one of the five classes above. Some foreign suffixes, however, subject to the influence of the characteristic feature of native suffixes, that is, native suffixes are added to independent words and make no alteration in the position of their primary stress, not infrequently change their classes into Class 0, thus belonging both to their respective classes and Class 0. This indicates that most foreign suffixes are within the influence of the native suffix.